



▲왼쪽부터 스키투론 윤성빈, 쇼트트랙 최민정, 빙속 이승훈·이상화.

평창동계올림픽 2월 9일~25일 평창·강릉·정선 등서 펼쳐져

‘하나된 열정’이 평창을 스포츠 열기로 물들인다. 지구촌의 축제인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이 2018년 2월 9일 개막해 25일까지 17일간의 열전을 이어간다.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두 번째 올림픽이다. 평창은 모두가 하나된 열정으로 동계 스포츠에 대한 전 세계인의 공감을 연결하는 무대를 꿈꾸고 있다.

동계올론 사상 첫 금메달 100개 돌파... 102개 종목 열전
한국, 스키투론 등 금 8개·은 4개·동 8개... 종합 4위 목표
KTX 서울~평창 58분·인천공항선 98분... 접근성 높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일정

종목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개회식		●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크로스컨트리 스키																		
컬링																		
피겨스케이팅																		
프리스타일 스키																		
아이스 하키																		
루지																		
노르딕 복합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스켈레톤																		
스키점프																		
스노보드																		
스피드스케이팅																		
폐회식																		

자료/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세 번의 도전 끝에 맞은 두 번째 올림픽 대한민국 평창은 세 번의 도전 끝에 지난 2011년 7월 6일 제12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독일 뮌헨과 프랑스 안시를 따돌리고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렀던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지구촌의 축제를 다시 치르게 됐다. 평창동계올림픽은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을 슬로건으로 해 하나된 세상을 그리고 있다.

열정, 애착, 몹시 좋아하는 것을 뜻하는 ‘Passion’은 평창이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세계적인 축제의 장이자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완성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Connected’는 연결하다, 결합하다, 이어지다. 맥이 통하다 등의 뜻. 평창을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문화 융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세대가 참여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고, 동계올림픽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의미다.

대회 엠블럼은 ‘평창’의 초성 ‘포’와 ‘차’를 모티프로 만들어졌다.

한글을 형상화 엠블럼은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인 평창, 그곳의 눈(설상)과 얼음(빙상)에서 선수들과 지구촌 사람들이 어울리는 열린 세상을 의미하고 있다. ‘차’는 눈꽃과 얼음의 모양을 하고 있다. 별을 닮은 모습이기도 하다.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는 백호를 캐릭터 한 ‘수호랑’이다.

‘수호’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 참가자, 관중을 보호한다는 뜻이다. ‘랑’은 ‘호랑이’와 강원도를 대표하는 ‘정선아리랑’의 ‘랑’에서 따왔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또 ‘아시아’라는 잠재력이 큰 새로운 무대에서 세계의 젊은 세대가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평창과 대한민국에 지속 가능한 유산을 남기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평화올림픽, 경제올림픽, ICT(정보통신기술) 올림픽을 지향한다.

◇12개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17일의 열전 평창올림픽은 평창, 강릉, 정선 등 총 12개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설상 종목은 정선 알파인 경기장,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 보광 스노 경기장, 용평 알파인, 알펜시아 스키·크로스컨트리·바이애슬론 센터에서 치러진다. 빙상 종목은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강릉 아이스 아레나, 강릉·관동 하키센터, 강릉 컬링 센터에서 열린다.

12개 경기장 가운데 6곳은 새로 건설했고, 나머지 6곳은 기존 시설을 보완하거나 개량해 사용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자료/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대회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개·폐회식은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치러진다.

지상 7층 지하 1층의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은 이번 올림픽의 5대 목표인 ‘문화, 환경, 평화, 경제, ICT올림픽’ 실현을 위해 오펀기와 음양오펀, 눈의 결정체 모양을 본떠 5각형 콘셉트로 지어졌다. 3만5000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고, 350석의 장애인석을 갖췄다.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은 사후 활용 등 경제성을 고려해 임시시설물 형태로 지어져서 대회 이후에는 일부만 남기고 철거될 예정이다.

평창올림픽이 유치된 후 강원도에는 1000km가 넘는 새로운 길이 생겼다.

철도 원주~강릉(120.7km), 용문~서원주(28km) 구간과 서울~양양고속도로(133.1km)와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원주(57km) 노선이 뚫렸고, 국도 74개 구간 586km가 신설 또는 확장·포장됐다.

여기에 축제의 현장을 찾을 이들을 위해 원주~강릉 복선전철도 개통하는 등 손님 맞을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최고시속 250km의 KTX 열차는 서울 청량리역 평창 진부역을 58분 만에 주파한다. 인천공항에서는 98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평창을 빛낼 별들

평창올림픽은 동계 올림픽 사상 최초로 금메달 수가 100개가 넘는 대회다. 15종목 102개 세부 종목에서 금메달을 향한 선수들의 열전이 펼쳐진다.

또 이번 평창올림픽에 스노보드 빅에어(남·여), 매스스타트(남·여), 컬링 믹스터널, 알파인 스키 혼성 단체전 등 6개 세부종목이 새로 추가되면서 역대 대회에서 가장 많은 여성·혼성 종목의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4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4위는 앞선 소치 대회보다 9계단 상승한 목표로 개최국 이점을 살려 최대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를 수확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쇼트트랙은 ‘메달밭’으로 기대를 모는 종목이다.

여자 쇼트트랙 ‘쌍두마차’ 최민정(19·성남시청)과 심석희(20·한국체대)는 금메달 0순위다. 특히 4년 전 소치에서 금·은·동메달을 하나씩 목에 걸었던 심석희는 더 많은 메달을 내다보고 있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서는 ‘빙상 여제’ 이상화(28·스포츠투트)의 올림픽 3연패 도전에 눈길이 쏠린다. 여자 500m 세계기록 보유자인 이상화의 맞수는 일본 고다이라(32)다. 2017시즌 자신을 압도한 고다이라를 상대로 이상화가 ‘진짜 무대’에서 역전극을 노린다.

남자 매스스타트 세계랭킹 1위인 이승훈(29·대천항공)은 금빛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다. 이승훈은 세 번의 월드컵 매스스타트 경기에서 두 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평창으로 가는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여자 매스스타트의 김보름(24·강원도청)도 부상에서 회복해 평창의 2월을 기다리고 있다.

썰매와 설상에서는 사상 첫 메달 도전이 이뤄진다.

이번 시즌 5차례의 월드컵에서 3개의 금메달을 가져간 스키투론 간판 윤성빈(23·한국체대)은 ‘황제’ 마르틴스 두쿠르스(라트비아)의 아성을 넘어선 모양새다. 윤성빈이 홈 이점까지 살려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썰매 종목 첫 메달을 겨냥하고 있다.

봅슬레이의 원윤종(32·강원도청)-서영우(26·경기도BS경기연맹)도 역시 비록 홈 이점을 살려 반전의 무대를 꿈꾸고 있다.

설상 종목에서는 이상호(22·한국체대)가 스노보드 알파인 종목에 도전장을 냈다.

지난 2월 삿포로 동계아시아계급 스노보드 알파인 평행회전과 평행대회전 2관왕에 오른 이상호는 3월 터키에서 열린 월드컵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한국 스키 사상 첫 월드컵 메달리스트가 됐다.

쇼트트랙 종목 최다인 6개의 금메달을 가지고 있는 안현수(32·러시아명 빅토르 안)는 러시아 도핑 스캔들을 딛고 개인 자격으로 평창 트랙에 서 설 전망이다.